

◆ 10-9평 13~17번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양에서 ‘천(天)’은 그 함의가 넓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었고,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고 그 존재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는 데도 그것의 이치와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동양에서는 인간이 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리 설정되었을 만큼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다.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현상과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 짙었다. 그래서 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천(自然天)’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천 개념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천은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되었고,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었다. 특히 상제(上帝)와 결부됨으로써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상제천(上帝天)’ 개념이 자리 잡았다. 길흉화복을 주재하고 생사여탈권까지 관장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가치중립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정치적인 개념으로 ‘천명(天命)’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천의 명령을 통해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천의 의지인 천명은 제사 등을 통해 통치자만 알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천명은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에 근거한 권력 행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도덕적 경계심이 결여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백성에 대한 억압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통치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도덕적 반성을 통해 천명 의식은 수정되었다. 그리고 ‘천은 명을 주었다가도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인제나 그 명을 박탈해 간다.’, ‘천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생각이 현실화되었다. 천명은 계속 수용되었지만, 그것의 불변성, 독점성, 편파성 등은 수정되었고, 그 기저에는 도덕적 의미로서 ‘의리천(義理天)’ 개념이 자리하였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천 개념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주재적 측면이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되었고, ‘의리천’ 개념은 더욱 심화되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천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이어 인간 본성을 자연한 것이자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도 수용되어 천의 도덕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었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 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졌고, ㉡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어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천명 의식은 농경 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 ② 천은 초월적인 세계 안에서 인간 삶의 표본이었다.
- ③ 자연으로서의 천 개념에는 작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 ④ 천은 인간에게 자연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었다.
- ⑤ 내면화된 천은 통치자의 배타적 권력 행사의 기반이었다.

14.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1점]

—<보 기>—

특정한 사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 개념의 어원에서 출발하여 ㉡ 개념의 의미 변천, ㉢ 해당 개념에 대한 주요 사상가의 견해, 그리고 ㉣ 현대적 적용 양상을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개념에 대해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 사상사 속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쟁점이 표출하는 다양한 의식의 층위도 고찰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천’에서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부각된다.
- ② ‘상제천’에서 인간 행위의 타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③ ‘의리천’에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잘 발휘되면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 ④ 천 개념의 개방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 ⑤ 천명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16. 위 글의 천 개념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천은 크기로 보면 바깥이 없고, 운행이 초래하는 변화는 다함이 없다.

ㄴ.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살피면 그와 같이 되도록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ㄷ. 인심이 돌아가는 곳은 곧 천명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거스르고 천을 따르는 자는 없고, 사람을 따르고 천을 거스르는 자도 없다.

ㄹ. 이 세상 사물 가운데 털끝만큼 작은 것들까지 천이 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들 한다. 대체 하늘이 어떻게 하나하나 명을 낸단 말인가? 천은 텅 비고 이득하여 아무런 조짐도 없으면서 저절로 되어 가도록 맡겨 둔다.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
①	ㄱ	ㄴ, ㄹ	ㄷ
②	ㄴ	ㄱ	ㄷ, ㄹ
③	ㄹ	ㄴ	ㄱ, ㄷ
④	ㄱ, ㄹ	ㄴ	ㄷ
⑤	ㄱ, ㄹ	ㄷ	ㄴ

17. ㉠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질어 건물 외벽을 점검했다.
- ② 질게 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
- ③ 철수는 질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 ④ 정원에서 꽃향기가 질게 풍겨 온다.
- ⑤ 해가 지고 어둠이 질게 깔렸다.

◆ 08 MDEET 언어추론 32~34번

[32~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제가 책문을 내려 물었다.

삼대의 제왕이 천명(天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징표는 어디에 있는가? 천재지변과 같은 변고는 왜 일어나는가? 사람의 성질과 수명의 실상을 보면, 혹은 어질고 혹은 비루하며, 혹은 장수하고 혹은 요절하니 그 이치는 무엇인가? 정사를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감로가 내리고 풍년이 드는가?

동중서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신이 삼가 『춘추』에 실린 지나간 사례로써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매우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국가가 올바른 도리를 잃어 패망에 가깝게 될 때에는 하늘이 먼저 재해를 일으켜 꾸짖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면 또 괴이한 현상을 내보여 놀라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때야야 손상과 패망이 이르게 합니다. 하늘은 여진 마음으로 군주를 사랑하여 나라의 어지러움을 그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크게 도리를 잃은 세상이 아니라면 하늘은 저들을 지지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온갖 힘을 쓰니, 우리가 할 일이란 끝까지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열심히 도를 실행하는 데 힘쓰면 덕은 날로 일어나고 공적이 크게 쌓일 것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으로 가는 길로서 인의예악(仁義禮樂)은 모두 그 도구가 됩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 치란과 흥망은 자기에게 달린 것이요, 하늘이 한번 명을 내렸다고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을 일으켜 제왕으로 세울 때는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징표입니다. 『서경』에서 “흰 물고기가 대왕의 배로 들어오고, 불이 일어 대왕의 지붕으로 깃들어 까마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서(祥瑞)를 보고 주공이 “보답이로다! 보답이로다!” 하였고, 공자는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 이웃이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이르러 방탕과 나태로 쇠퇴해진 나라의 군주가 백성을 통솔하여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형벌의 시행이 적중하지 못하여 사악한 기운이 발생하고, 이것이 아래 쌓이니 위에는 원망과 증오가 생겨 상하가 조화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음양이 뒤틀리고 요사스러운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명(命)이란 하늘이 내린 명령이요, 성(性)이란 생명체의 본 바탕이라고 신은 들었습니다. 수명의 장단, 성질의 어질과 비루함이 생기는 것은 도공이 그릇을 빚고 대장장이가 철기를 만들듯이 하늘이 사람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바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공자께서는 ㉠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눕기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순 임금께서 덕을 베풀자 백성들은 어질게 되고 장수했으며, 걸·주 임금이 폭정을 행하자 백성들은 비루해지고 요절했습니다.

신이 삼가 『춘추』에 실린 글을 살펴 왕도의 시초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 그것은 정(正)에 있었습니다. ‘춘정正月’이라 하여,

‘정’은 ‘왕’의 다음 자리에 있고, ‘왕’은 ‘봄[春]’의 다음 자리에 있습니다. 봄은 하늘이 행하는 것이요, 한 해의 시작을 제정하는 것은 제왕의 일입니다. 따라서 그 뜻은 위로는 하늘이 행하는 바를 받들고 아래로는 자신이 행하는 바를 바르게 함으로써 왕도의 시작을 정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왕이 된 자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하늘에서 그 단서를 구해야 합니다.

32. 무제의 질문에 대한 동중서의 답변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의예악으로써 다스리고, 형벌을 남용하면 안 된다.
- ② 천재지변과 같은 변고는 제왕이 천도를 따르지 않고 정치가 어지러워졌을 때 나타난다.
- ③ 제왕이 천명을 받았다는 징표는 하늘만이 보여 줄 수 있는 현상으로서 옛 책에 기록되어 있다.
- ④ 절후(節候)의 변화가 순조롭기를 바란다면 제왕은 봄에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늘을 본받아 정월을 제정하듯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
- ⑤ 사람의 성질과 수명이 다른 이유는 하늘이 사람을 균등하게 만들어 내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제왕은 그것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33. 동중서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본성은 이익을 좋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이 본성을 좇기 때문에 사양지심이 없어지고 남을 해치며 비방하는 일이 생긴다.
- ② 옛것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홀연히 새것이 된다. 선왕의 예교(禮敎)는 시대의 용도에 따른 것이니, 시대가 지났어도 폐기하지 않으면 백성에게 오히려 된다.
- ③ 사물이나 현상은 자신과 다른 것을 피하고 같은 것끼리 어울린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각기 서로 끌리어 생겨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보통 그 연유를 알지 못하여 우연으로 치부해 버린다.
- ④ 자연계는 인간 세상과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재하고 운행한다. 하늘은 사람이 추위를 싫어한다 하여 겨울을 물리지 않으며, 땅은 사람이 먼 거리를 싫어한다 하여 광야를 거두지 않는다.
- ⑤ 천지의 도는 작위(作爲)가 없으니 만물은 스스로 서로 다스리고 풍족해질 것이다. 천지는 짐승을 위해 풀을 만들지 않았지만 짐승은 풀을 뜯고, 사람을 위해 짐승을 만들지 않았으나 사람은 짐승을 잡아먹는다.

34. 위 글의 맥락에서 ㉠을 이해할 때, 옳지 않는 것은?

- ① 세상 만물이 하늘의 뜻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온 백성이 고루 제왕의 은덕을 입을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 ③ 제왕의 덕치가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정치 운영에서 제왕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제왕과 백성의 자질이 다름을 전제하고 있다.

◆ 15-9평 B형 17~21번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사상계가 양주(楊朱)와 묵자(墨翟)의 사상에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孟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孔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그는 공자의 춘추 시대(春秋時代)에 비해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특히 '의(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었다.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仁)'의 실천에서 찾고,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를 제시하였다. 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자는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인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유비적 확장을 통해 '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나아가 그는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하고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특히 작은 이익이건 천하의 큰 이익이건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면 천하는 필연적으로 상하 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 결부된 이익의 추구는 ‘의’에서 ㉡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는 일종의 ㉢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하여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 역설하였다. 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의 확충과 더불어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는 목숨과 ‘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③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 ④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있다.
- ⑤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8. 윗글의 ‘맹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② ‘의’의 실천은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 ③ 가정 내에서 ‘인’과 더불어 ‘의’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의’의 의미 확장보다는 ‘인’의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⑤ 사회 규범으로서 ‘의’는 ‘인’과 대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19. ㉠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상의 올바른 이치가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으니, 수양을 통해 이것을 깨달으면 이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 ② 바른 도리를 행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하니, 분별에는 직분이 중요하고, 직분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의가 중요하다.
- ③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난 성인들이 만든 것이지 인간의 성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 ④ 군자에게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어지러움을 일으키게 되고, 소인에게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남의 것을 훔치게 된다.
- ⑤ 저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어른으로 대우하는 것이지, 나에게 어른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20. 윗글의 ‘맹자’와 <보기>의 ‘목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목적’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개인 간의 갈등과 사회의 혼란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의’를 통해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면 ‘의’가 실현되어 사회의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의’의 실현이 만물을 주재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여 ‘의’를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 ① ‘맹자’와 ‘목적’은 모두 ‘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보았다.
- ② ‘맹자’는 ‘의’와 이익이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고, ‘목적’은 ‘의’와 이익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 ③ ‘맹자’는 이익의 추구를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목적’은 이익의 충족을 통해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맹자’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을 ‘의’를 실천하게 하는 동기로 보았고, ‘목적’은 ‘의’의 실천을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 ⑤ ‘맹자’는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고, ‘목적’은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21.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함.
- ② ㉡: 책임이나 부담 등을 더 무겁게 함.
- ③ ㉢: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시킴.
- ④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⑤ ㉤: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도덕적 규범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유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상도(常道)’와 ‘권도(權道)’로 설명하고 있다. 상도는 일반 상황에서의 원칙론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이고,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황론으로서 그 상황에 일시적으로 ㉔ 대응하는 개별적 규범이다.

도(道)는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원리와 인간이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하는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이다. 상도는 도를 인간의 도덕적 원리로 연결한 인(仁), 의(義), 예(禮)와 같은 기본적인 보편적인 도덕규범이다. 상도를 근거로 상황 변화에 알맞게 대응할 때 도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데, 이때 권도가 필요할 수 있다.

맹자는 권도를 일종의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㉕ 해법으로 제시한다. 맹자는 “남녀 간에 주고받기를 직접 하지 않음은 예(禮)이고, 형제의 부인이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權)이다.”라고 하였다. 남녀 간에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상도에, 형제의 부인을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 한 번만 사용하는 것으로, 높은 경지의 상황 판단력을 요한다. 상황의 위급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 중 스스로 선택한 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권도가 합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권도의 합당성은 실행의 동기와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맹자의 말에서는 권도에 해당하는 규범이 상도인 ‘예’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권도가 상도에 반하거나 또는 예가 아니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맹자의 관점에서 상도와 권도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달라도 결국 모두 도이다. 권도는 도를 굽힌 것이 아니라 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위의 상황에서 남녀 간에 손을 잡는 행위 자체는 상도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 행위는 결국 생명을 구하여 도를 실천할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맹자는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로써 권도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상도를 권도의 기반으로 보며 매우 중시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본질인 상도를 따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나)

병자호란 당시 청이 조선에 제시한 강화 조건은 조선이 ㉖ 고수해 왔던 명에 대한 의리, 곧 대명의리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에 ㉗ 척화론자들은 대명의리를 지켜야 하므로 청과의 화친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당대인들은 조선과 명을 군신(君臣)이자 부자(父子)의 의리가 있는 관계로 보았고, 특히 임진왜란 때 명의 지원을 받은 후 대명의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척화론자들은 불의로 보존된 나라는 없느니라 못하다고까지 하면서 척화론을 고수하였다. 이때 이들이 우려한 것은 명의 ㉘ 문책이라기보다는 대명의리라는 보편적 규범의 포기야 따르는 도덕 윤리의 붕괴였다고 할 수 있다. 척화론은 실리의 문제를 초월한 의리의 차원에서 당시뿐 아니라 후대에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반면 ㉙ 최명길 등의 주화론자들은 나라를 보전하기 위해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명길도 대명의리가 정론(正論)임을 인정하였고, 강화가 성립된 후에도 대명의리를 계속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 논거를 들어 청과의 화친이 합당한 판단임을 주장했다. 우선 그는 척화론자들의 ‘나라의 존망을 헤아리지 않는 의리’를 비판하였다. 중국 후진의 고조는 제위에 오를 때, 이민족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힘을 빌리며 신하가 되기를 자처했다. 그런데 다음 황제 때에 신하 경연광이 요의 신하라고 칭하는 것을 그만두자는 강경론을 주도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요가 침입해 후진은 멸망하였다. 이에 대해 유학자 호안국은 천하 인심이 오랑캐에게 굽힌 것을 불평하고 있었으니 한번 후련히 설욕하고자 한 심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정치적 대처 면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죄는 ㉚ 속죄될 수 없다고 경연광을 비판했다. 최명길은 이 호안국의 주장을 인용하며 신하가 나라를 망하게 하면 그 일이 바르다 해도 죄를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명길은 조선이 명으로부터 중국 내의 토지를 받은 직접적인 신하가 아니라 해외에서 조공을 바치는 신하일 뿐이기 때문에 명을 위해 멸망까지 당할 의리는 없으며 조선의 임금은 백성과 사직을 보전할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춘추』에 따르면 신하는 먼저 자기 자신의 임금을 위해야 하므로, 조선의 신하가 명을 위하여 조선을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마땅한 의리라고 하였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나)는 특정한 대의 정책이 실현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의 역사적 한계를, (나)는 특정한 대의 정책의 이론상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을 반박하는 주장들을, (나)는 특정한 대의 정책을 반박하는 주장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에 대한 사상가의 견해를, (나)는 특정한 대의 정책에 대한 정치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역사적 현실에 적용된 사례를, (나)는 특정한 대의 정책이 학문적 논의의 주제가 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5.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맹자는 도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 도를 굽히는 것이 권도라고 보았다.
- ② 유학에서는 도를 형이상학적 원리와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으로 보았다.
- ③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도덕규범으로 인, 의, 예와 같은 것이 있다고 보았다.
- ④ 맹자는 인간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상도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⑤ 맹자는 상도와 권도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속성이 있다고 보았다.

6. (가)의 맹자와 <보기>의 칸트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칸트는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천 기준으로서의 도덕규범을 제시하였다. 가령 칸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도덕규범이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의의 거짓말도 옳지 않은데,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① 맹자는 칸트와 달리, 도덕규범을 통해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 결과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맹자와 달리, 상황에 따라 어떤 도덕규범을 지켜야 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맹자와 달리,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도 보편적인 도덕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④ 맹자와 칸트는 모두, 보편적인 도덕규범보다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⑤ 맹자와 칸트는 모두, 생활 속에서 도덕규범을 어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본질적인 가치를 얻게 될 때도 있다고 보았다.

7. 호안국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 ① 이민족이 세운 나라의 힘에 의존함으로써
- ② 이민족의 나라에 자존심 없이 신하를 자처함으로써
- ③ 이민족의 침입에 대해 설욕할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 ④ 이민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국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 ⑤ 이민족의 나라라고 해서 현실적인 고려 없이 적대함으로써

8. (가)를 바탕으로 (나)의 ㉠,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 불의한 방법으로 나라를 보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 것은 도덕규범에 있어 상황론보다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② ㉠이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 대명의리는 당대인들에게 일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보편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어.
- ③ ㉡이 『춘추』의 내용을 언급하며 신하가 지켜야 할 의리를 논한 것은 실행 동기를 따지지 않고 도덕규범을 현실에 적용한 논의로 볼 수 있어.
- ④ ㉡이 대명의리가 정론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과 화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것은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이 나라의 보전을 위해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 방법이 유일하다고 판단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권도를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9.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
- ② ㉡: 해내기 어렵거나 곤란한 일을 푸는 방법.
- ③ ㉢: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킴.
- ④ ㉣: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 ⑤ ㉤: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앴.

◆ 05 MDEET 언어추론 27~29번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仁)은 두 사람입니다. 옛 글자에서는 사람 인(人)을 중첩시켜 썼는데, 그것은 아들 자(子)를 중첩시켜서 손(孫)을 표기한 것과 같습니다. 효(孝)로써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인(仁)이니 자식과 부모가 두 사람이요, 충(忠)으로써 군주를 섬기는 것이 인(仁)이니 신하와 군주 두 사람입니다. 무릇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을 인(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현들이 인(仁)을 해설할 때 모두 “인(仁)은 사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맹자』에서 “인(仁)은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인(仁)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용』에서도 “인(仁)은 사람이다. 부모를 친애하는 것이 인(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임금을 아끼고 백성을 보살피는 것 등이 모두 인(仁)이 아닌 것이 없지만, 그 여러 인(仁) 중에서도 부모를 친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의(義)는 ㉠ ‘자신을 선하게 하는 것[善我]’입니다. 의는 소중한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어서 인(仁)과는 다릅니다. 응소(應劭)의 『풍속통의』에 “남을 아껴주면 인(仁)이라고 하고, 나를 선하게 하면 의(義)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훈고(訓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설명입니다. 어떤 물건을 얻었을 때, 그것을 받아서 내가 선하게 될 수 있으면 받고, 받아서 선하게 될 수 없으면 물리쳐 나를 선하게 하는 데로 귀착하는 것이 곧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어떤 때는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기도 합니다. 어찌 곁에 있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자애로운 아버지라도 어떤 때는 아내와 자식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仁) 자는 사람을 뜻하는 인(人)을 부수로 하고, 의(義) 자는 자신을 뜻하는 이(我)를 부수로 한 것이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인의예지는 모두 구체적 사태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 그 명칭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심(心) 속에 있는 이(理)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맹자』의 “인의예지근어심(仁義禮智根於心)” 일곱 글자에 대해서는 바로 조기(趙岐)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뿌리[根]는 초목의 근본입니다. 그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아름답고 번성하는 것은 땅 위에서이고, 그 뿌리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의예지가 심(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맹자는 뿌리 근(根) 자를 빌려서 설명한 것입니다. 만약 “인의예지가 심(心) 속에 있는 뿌리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뿌리가 발육시키는 대상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조기는 이 구절을 풀이하여 “네 가지는 그 뿌리가 심(心) 속에 생겨, 그 형색이 얼굴에 나타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설명은 매우 정밀한 것으로 지금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맹자』의 학문은 오로지 인의(仁義)를 실천하여 호연한 기상을 기르곤자 합니다. 따라서 주자 역시 ‘의를 모은대[集義]’는 것을 선행을 쌓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의를 모으고 선행을 쌓는다는 것은 곧 인의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인을 실천하고, 내일 한 가지 의를 실천하여, 이에 호연한 기상이 길러지면 얼굴이 윤택해지고 몸이 넉넉해집니다. 따라서 맹자가 그 점을 일

러, “그 근본은 심(心)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인품은 얼굴에 환히 나타난다.”라고 하였으니, 요컨대 구체적인 일에서 행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인의가 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理)라고 이해한다면, 고기 팔고 술 파는 사람조차도 또한 반드시 얼굴이 윤택하고 몸이 넉넉한 형상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의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정약용, 이재의에게 보내는 답장 -

27.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전의 주해(註解)
- ② 용어의 원의(原義)
- ③ 선인(先人)의 권위
- ④ 일상의 경험적 사실
- ⑤ 논쟁의 역사적 추이

28. ㉠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선(善)을 행하는 일은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 ② 노인을 편안하게 봉양하고 친구를 미덥게 유도하고 젊은이를 진취적으로 포용한다.
- ③ 선행을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듯이 행동하고, 악행을 보면 끓는 물에 들어가듯 여긴다.
- ④ 자신이 살기 위해 인(仁)을 해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지만, 몸을 바쳐 인(仁)을 이루는 일은 할 때가 있다.
- ⑤ 배우는 것은 넓게 하고 뜻을 가지는 것은 독실하게 하면서,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 자신의 경우에서부터 미루어 생각한다.

29. 위 글은 이재의의 견해에 대한 정약용의 반박을 담고 있는 편지이다.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재의가 주장한 바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맹자』에 인의예지가 심(心)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으니 인의예지를 마음 밖에 있는 것으로 말해서야 되겠는가?
- ② 맹자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였으니,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라 해서 어찌 인의예지의 본성이 없다고 하겠는가?
- ③ 인의예지를 논하면서 심(心)의 본원이 되는 이(理)를 빼놓는다면, 근본은 간과하고 말단만 논하는 꼴이 아니겠는가?
- ④ ‘의를 모은대[集義]’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선행의 간단없는 실천으로 인의예지를 쌓아 호연한 기상을 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 ⑤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인의예지라는 본성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 14-9평 B형 17~20번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 유학자들은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訓詁)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희와 정약용은 ㉔‘명명덕’과 ‘친민’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주희는 ‘명덕(明德)’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명명덕’은 바로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약용은 명덕을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으로 해석한다.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이다.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㉕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㉖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㉗‘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㉘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랐다.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㉙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둔 반면,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㉚바로잡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17.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학’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공자가 건립한 교육 기관이다.
- ② 주희는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 ③ 주희와 정약용의 경진 해석에서 글자의 훈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 ④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정약용의 『대학』 해석에는 마음 수양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18. ㉔, ㉗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㉔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은 일치한다.
- ② 주희와 정약용 모두 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㉗를 강조하였다.
- ③ 주희는 ㉔를 ‘효’, ‘제’, ‘자’라는 구체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④ ㉗에는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주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 ⑤ 정약용은 ㉗가 고본 『대학』의 ‘친민’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었다고 보았다.

19. 윗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왕양명은 당시에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고본 『대학』에 따라 ‘친민’으로 고쳤다. 그는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한 ‘신’보다는 ‘친’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 ① 왕양명과 정약용은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 ② 정약용은 왕양명의 ‘명덕’ 해석이 주희와 다르다고 보았다.
- ③ 왕양명의 ‘친민’ 해석은 주희가 아닌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한다.
- ④ 왕양명과 정약용은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왕양명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20. 문맥상 ㉑~㉓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인도(引導)해야
- ② ㉒: 지시(指示)해야
- ③ ㉓: 개편(改編)했다
- ④ ㉔: 도착(到着)할
- ⑤ ㉕: 쇄신(刷新)하고자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 기도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 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 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 인의(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이었다.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나)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난 점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에 ㉦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신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대까지도 논란이 ㉧ 계속되었지만, 문종 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元)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 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이었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 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다.

4.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한(漢)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② (가)는 피지배 계층을, (나)는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예상 독자의 반응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③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에 따른 창작 환경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④ (가)는 학문적 성격의, (나)는 실용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보편성을 확인하며 읽는다.
- ⑤ (가)는 국가 주도로, (나)는 개인 주도로 편찬된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각 주제별 관심 분야의 차이를 확인하며 읽는다.

5.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 ②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 ③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감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④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었다.
- ⑤ 『용비어천가』에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 ② ㉡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 ③ ㉢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한다.
- ④ ㉣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이다.
- ⑤ ㉠과 ㉡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7. 밑글에서 '육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 하도록 한다.

ㄴ.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 온 것에 있다.

ㄷ.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 ④ ㄱ, ㄷ ⑤ ㄴ, ㄷ

8.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닫기 한다는 뜻이다.

ㄴ.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士林)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ㄷ. 도(道)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 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 ① ㄱ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군.
- ② ㄱ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닫기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ㄴ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들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있다고 보아야겠군.
- ④ ㄷ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ㄷ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 편찬과 관련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에, 현실에서 학문의 구현은 도의 큰 쓰임에 대응하겠군.

9.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피했다
- ② ㉡ : 받아들여
- ③ ㉢ : 믿던
- ④ ㉣ : 끼어들었다는
- ⑤ ㉠ : 이어졌지만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국의 전국시대는 주 왕실의 봉건제가 무너지고 열국들이 중국 천하를 ㉔ 할거하면서 끝없는 전쟁으로 패권을 다투던 혼란과 분열의 시기였다. 이때 등장한 제자백가 철학은 전국시대라는 난세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세우기 위한 사회적 필요와 인간에 대한 치열한 사유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당대 사상가들은 국가 또는 공동체의 질서 회복과 개인의 삶의 관계를 어떻게 모색하였을까?

전국시대의 주류 사상가로서 답론을 ㉕ 주도했던 양주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만을 위한다는 위아주의(爲我主義)를 주장했다. 이는 ㉖ 사회의 모든 제도와 문화를 인위적인 허식으로 보고 자신의 생명을 완전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얼핏 보면 양주의 이러한 사상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 체제를 부정하고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무질서한 사회의 원인을 국가나 국가 지향적 이념의 부재로 여기는 데 반해, 양주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삶을 희생하라'는 국가 지향적 이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강력한 공권력을 독점한 국가에 의해 개인의 삶이 일종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통찰하고, 개인은 사회 규범이나 국가 지향적 이념에 사로잡혀 개인을 희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삶의 절대적 가치를 ㉗ 자각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한비자는 강력한 법치주의(法治主義)로 무장한 국가의 중요성과 절대군주론을 주장했다. 한비자는 군주가 법의 화신이 되어 엄한 법으로 다스려야 국가의 혼란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또한 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법은 반드시 성문법 형식으로 만들어져 백성들 사이에 두루 알려져야 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상하귀천을 ㉘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비자는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공권력으로 상벌 체계를 확립하면 상을 얻기 위해 법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된다면, 법치를 통해서 국가는 강력해지고, 동시에 백성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얻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비자가 생각하는 법치의 진정한 의의는 백성을 보호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양주는 국가와 같은 외적 존재가 개인의 삶에 ㉙ 개입하는 것을 부정한 반면, 한비자는 공평무사한 정신으로 질서를 확립하여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군주 정치를 최선으로 여겼다.

21. 윗글의 '양주'와 '한비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존재이다.
- ② 개인의 삶이 국가의 제약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 ③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
- ④ 개인과 국가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이상적이다.
- ⑤ 사회 질서의 안정과 발전보다 개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

22. 윗글의 '양주'와 '한비자'가 <보기>의 밑줄 친 인물들에 대해 평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은나라의 신하였던 백이와 숙제는 유가적 관점에서 나라와 군주에 대한 충성과 절의의 대명사로 추앙받고 있다. 주나라의 무왕이 주종 관계를 무시하고 은나라 주왕을 죽여 천하를 평정하자, 백이와 숙제는 무왕이 군주에 대한 인의(仁義)를 배반한 신하라고 비판하였다. 백이와 숙제는 도리를 저버린 무왕이 지배하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수양산에 은둔해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

- ① 양주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규범에 얽매어 개인의 삶을 잃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 ② 양주는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도 없이 무책임하게 현실을 도피한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로 볼 것이다.
- ③ 한비자는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군주를 억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 ④ 한비자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⑤ 양주와 한비자 모두 부당한 국가 권력과 시류에 휩쓸리지 않은 무욕의 처신을 높이 인정하여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고 볼 것이다.

23. ㉙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 지향적 이념 추구가 개인의 삶을 위협한다고 보았기에
- ② 당대 정치가들이 난세를 극복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기에
- ③ 법과 제도만으로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보았기에
- ④ 전쟁으로 인한 제도의 혼란이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기에
- ⑤ 확립화된 문화와 사회 제도가 국가체제 유지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았기에

24. 문맥상, ㉚~㉜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㉚ : 나누어 차지하면서
- ② ㉛ : 이끌었던
- ③ ㉜ : 스스로 깨달아야만
- ④ ㉚ : 꿈꿈히 따지고
- ⑤ ㉜ : 끼어드는

◆ 13년 11월 고2 A형 28~30번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양철학의 바탕에는 ‘도(道)’에 관한 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나 도에 대한 관점은 사상가들마다 다르다.

우선, ㉠ 공자가 말하는 도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도는 구체적인 행동양식인 ‘예(禮)’에 의해 실천된다. 객관화된 인간의 행동규범이 예이고 그 예의 성립근거가 ‘도’이므로 도는 일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는 인간의 내면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즉, ‘도’는 인간의 자기 자각과 훈련으로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 공자는 이런 자기 자각과 훈련을 통해 이룩한 도가 실현된 사회를 꿈꾸었다. 그 사회는 법제도보다는 인격, 형벌보다는 감화에 의해 추동되는 사회였다. 그는 ‘정치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이나 면하려 들지 수치를 모르게 된다.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수치를 알고 또 올바르게 된다.’고 하여 예와 덕으로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자는 앞서 공자가 주장한 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즉, 통치 질서가 무너진 주나라의 예법을 회복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범을 만들어 도덕의식을 개혁하려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노자는 도를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만물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큰 도를 찾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를 만물이 생성하는 근원이라 보고, 이는 인간이 한정할 수 없는 존재이며, 규정할 수 없는 ‘무’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것에 의존하거나 무엇에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한다고 하고, 그러한 성질을 ‘자연’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즉, ㉢ 노자의 도는 공자의 인위적 규범인 도와 달리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 한비자는 공자의 도와 그 도가 실현된 사회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그는 공자에서 비롯된 유가의 길치레를 비판하고 엄격한 형벌의 집행을 주장했다. 한비자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그대로 놓아두면 반드시 혼란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인격을 통한 감화는 인간들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없다고 보고, 법만이 천하의 가장 좋은 도라 주장하였다. 그는 유교의 원리로는 자식 교육도 기약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건달 아들을 바로잡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스승의 교육이 아니라 엄격한 부랑자법과 몽둥이를 든 형졸이며, 인격과 학문은 무력한 데에 반해 힘과 권위는 실질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도’에 대해 공자는 인간이 지켜야할 도리, 노자는 만물이 생성하는 근원, 한비자는 법 자체라고 본 것이다. 이로 보아 도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여러 사상가들이 연구해 왔던 동양철학의 근저임을 알 수 있다.

28.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올바른 삶의 길
- 무위를 따르려한 사상가들
- ② 인격 배양의 길
- 노자와 비교되는 공자의 길
- ③ 동양철학에서의 ‘도’
- 여러 사상가들의 관점 고찰
- ④ ‘도’를 따르는 삶
- 노자와 한비자의 서로 다른 생애
- ⑤ 동양 사상의 핵심
- 공자와 한비자를 중심으로 한 동양 사상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인간의 내면에서 유래한다.
- ② ㉠과 달리 ㉡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 ③ ㉠과 달리 ㉡은 인간이 없어도 성립된다.
- ④ ㉠과 달리 ㉡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다.
- ⑤ ㉠, ㉡은 모두 인간의 제도적 규범을 의미한다.

30.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 ㉤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선 시대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발길에 채여 하룻밤 만에 죽었다. 하지만 이 형제의 아버지를 발로 찬 당사자는 잠적하였다. 이에 분노한 형제는 아버지의 원수를 추적하여 끝내 죽이고 말았다. 당시 법조문에 따르면 이는 중범죄에 해당했다. 그러나 왕은 법조문을 이 형제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왕명을 내리고 이들 형제의 효성을 치하하며 형제를 풀어주었다.

- ① ㉣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은 백성들을 덕과 예로써 다스리려 한 것이군.
- ② ㉣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은 형벌보다는 인격을 통하여 백성들을 감화시키려 했군.
- ③ ㉣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도리를 깨우치고 있으니 다른 형벌은 필요 없을 것 같군.
- ④ ㉤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이 법조문을 따르지 않은 것은 인간이 이기적 존재임을 간파한 것이군.
- ⑤ ㉤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격하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왕의 판결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군.

◆ 15년 11월 고2 A형 16~19번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교에서 '성인'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순자는 누구나 ㉠ '심(心)'을 수양하면 이러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수양론에는 인간이 이상적 상태에 이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 경주(傾注)해야 하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 한다.

순자에 따르면 심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道)'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이다. 즉 심은 인간의 욕망을 다스려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은 불안정하여 외부 사물에 방해를 받아서 ㉢ 편견(偏見)에 빠지기 쉽다. 인간의 심이 편견에 빠지면 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순자는 이렇게 심이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 '폐(蔽)'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심이 폐의 상태가 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를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어긋나게 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순자는 인간이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심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허(虛)', '일(壹)', '정(靜)'을 제시하고 있다. '허'는 심이 과거의 지식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의 심은 기존의 지식에 영향을 받아 편견이 생기고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심이 허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여 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일'은 심이 여러 가지 사물의 차이를 구별하는 가운데, 유기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심이 일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물을 서로 ㉤ 혼동(混同)하지 않고 도에 집중하게 되어 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은 심이 고요함을 간직하여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의 심은 항상 움직이면서 상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

기 쉽다. 이렇게 되면 심은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심이 정(靜)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고요함을 유지하여 도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심은 '허일정'을 통해, 편견을 극복하고 도를 ㉠ 인식(認識)하여 사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순자는 이와 같은 이상적 상태를 '대청명(大淸明)'이라 부르고 이에 도달한 존재를 성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특별한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추었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양에 ㉢ 정진(精進)할 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16. 윗글에 나타난 '순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다.
- ② 일은 사물의 구별이 없이 통합된 심의 상태이다.
- ③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양이 필요하다.
- ④ 성인은 대청명이라는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한 존재이다.
- ⑤ '심'이 상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면 객관적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17.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 ㉢이 되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 ② ㉠은 수양의 과정을 통해 ㉢에 도달할 수 있다.
- ③ ㉠, ㉢ 모두 도를 인식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
- ④ ㉠은 ㉢과 달리 외적 사물에 흔들리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 ⑤ ㉢은 ㉠과 달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18. 윗글의 '순자'와 <보기>의 '장자'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장자는 '도(道)'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는 허일정을 심(心)을 비우고, 심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며, 고요함의 상태에서 외적 사물에 동요되지 않고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허일정을 욕망, 지식 등과 같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처럼 장자는 날마다 털어냄을 통해 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① 순자와 장자는 모두 '허일정'을 '심'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군.
- ② 순자와 장자는 모두 '도'에 이르는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하고 있군.
- ③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순자와 장자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군.
- ④ 순자는 욕망을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장자는 욕망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군.
- ⑤ 순자와 장자는 기존 지식을 비운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채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군.

1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힘이나 정신을 한곳에만 기울임.
- ② ㉡: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 ③ ㉢: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함.
- ④ ㉣: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 ⑤ ㉤: 여럿 가운데서 앞서 나아감.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욕망은 무엇에 부족함을 느껴 이를 탐하는 마음이다. 춘추전국시대를 살았던 제자백가들에게 인간의 욕망은 커다란 화두였다. 그들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 전쟁을 일삼던 현실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탐구하였다.

먼저, **맹자**는 인간의 욕망이 혼란한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다. 욕망이 과도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대립과 투쟁이 생기기 때문이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살면서 욕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욕망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에, 욕망을 제어하여 선한 본성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가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강조한 것이 ‘과욕(寡慾)’과 ‘호연지기(浩然之氣)’이다. 과욕은 욕망을 절제하라는 의미로, 마음의 수양을 통해 욕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호연지기란 지극히 크고 굳센 도덕적 기상으로,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해야만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맹자보다 후대의 인물인 **④ 순자**는 욕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질투와 시기감이 심하며 눈과 귀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에게 내재된 도덕적 판단 능력만으로는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더군다나 이기적 욕망을 그대로 두면 한정된 재화를 두고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어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므로, 왕이 ‘예(禮)’를 정하여 백성들의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예는 악한 인간성을 교화하고 개조하는 방법이며,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순자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나라에서 교육과 학문을 통해 예를 세워 인위적으로 선(善)이 발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는 맹자의 주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금욕주의라 할 수 있다.**

이들과는 달리 **④ 한비자**는 권력과 재물, 부귀영화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본 점에서는 순자와 같은 입장이지만, 그와는 달리 본성을 교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이익 추구를 위한 동기 부여의 원천이 되고, 부국강병과 부귀영화를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세상을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약육강식의 장으로 여겼기에, 군신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 관계가 충효와 같은 도덕적 관념이 아니라 단순히 이익에 의해 맺어져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백성들에게 노력하면 부자가 되고, 업적을 쌓으면 벼슬에 올라가 출세를 하며,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고, 공로를 세우면 상을 받도록 해서 특혜와 불로소득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주장하였다.

1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욕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고 그 입장들을 비교하고 있다.
- ② 욕망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욕망을 보는 상반된 견해를 나열하고 그것의 현대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④ 욕망이 나타나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욕망 이론의 타당성을 따지고 있다.
- ⑤ 욕망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1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욕’과 ‘호연지기’를 통해 인간의 선한 본성이 확충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② ‘예’가 ‘과욕’과 ‘호연지기’보다는 인간이 삶 속에서 실천하기 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 ③ 개인적인 욕망과 사회적인 욕망을 모두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 ④ 욕망 조절을 개인의 수양에만 맡기지 않고, 욕망을 외적 규범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⑤ 무엇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함을 직시하고, 이것의 조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18. <보기>를 **맹자**의 입장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소문으로 A 음식점은 손님이 줄어들어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A 음식점 주인이 소문의 진상 파악을 경찰에 의뢰했고, 이를 조사한 결과 경쟁 관계에 있던 B 음식점 주인이 A 음식점에 빼앗긴 손님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 ① A 음식점의 음식에서 이물질 발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손님들의 도덕성이 의심되는군.
- ② B 음식점 주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일은 이기적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니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겠군.
- ③ A 음식점 주인은 B 음식점 주인이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겠군.
- ④ A 음식점을 시기하는 마음이 B 음식점 주인에게 드는 것은 인간의 나쁜 본성 때문이니 의로운 일을 하면서 변화되어야겠군.
- ⑤ B 음식점 주인이 경쟁 관계인 A 음식점의 수익까지 욕심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수양을 통해 절제해야겠군.

19. ㉗와 ㉜의 공통된 견해로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간은 이기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 ㄴ. 백성의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ㄷ. 사회적 규범으로 인간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
- ㄹ. 인간의 욕망은 부귀강명과 부귀영화를 이루는 수단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 담긴 저작이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자』에서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氣)’라고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 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했다.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경주』를 저술했다.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계를 재편했다.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 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는 자신의 ㉡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집해』를 저술했다.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1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다.
- ②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를 소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각각 제시하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을 절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13.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②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③ 도는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에 따라 변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 ④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 ⑤ 도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현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다.

1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은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 의도를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② ㉠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하는, ㉡은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③ ㉠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은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유학 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④ ㉠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 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의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⑤ ㉠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와 유학 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은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여 다른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15. (나)의 왕안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만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ㄴ.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ㄷ. 도는 현상 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ㄹ.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 세계가 변하니,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한다.

- ① 왕안석은 ㄱ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하겠군.
- ② 왕안석은 ㄴ과 ㄹ에 동의하겠군.
- ③ 왕안석은 ㄷ에 동의하고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④ 오징은 ㄱ과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⑤ 오징은 ㄴ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16.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①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가)의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겠군.
- ②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나)의 왕안석이 사회 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은 긍정하겠군.
- ③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겠군.
- ④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 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 ⑤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설해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

1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과일이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다.
- ② 상자에 탁구공이 가득 담겨 있다.
- ③ 시원한 계곡물에 수박이 담겨 있다.
- ④ 화폭에 봄 경치가 그대로 담겨 있다.
- ⑤ 매실이 설탕물에 한 달째 담겨 있다.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도덕적이고 규범적이며 사람다운 삶을 강조하는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성리학은 우주의 근원과 질서, 그리고 인간의 심성과 질서를 ‘이(理)’와 ‘기(氣)’ 두 가지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성리학을 ‘이기론’ 또는 ‘이기 철학’이라고도 부른다. 성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는 만물에 ㉠ 내재하는 원리이고, ‘기’는 그 원리를 현실에 드러내 주는 방식과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는 언제나 한결같지만 ‘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므로, 우주 만물의 원리는 그대로지만 형체는 다양하다. 이러한 ‘이’와 ‘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성리학자들이 현실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기’를 중시했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서경덕을 들 수 있다. 그는 ‘기’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서경덕에 의하면, 태초에 ‘기’가 음기와 양기가 되고, 음기와 양기가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하면서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불과 물 등의 만물이 만들어졌다. ‘기’는 어떤 외부의 원리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 만물을 생성하고 변하게 한다. 하지만 ‘이’는 ‘기’ 속에 있으면서 ‘기’가 작용하는 원리로 존재할 뿐 독립적으로 드러나거나 ㉡ 작용하지 않는다. 즉, ‘이’와 ‘기’는 하나이며,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기’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기일원론(氣一元論)’이라 한다. 기일원론의 바탕에는, 현실 세계의 모습은 ‘기’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므로, ‘기’가 다시 움직이면 현실도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이’를 중시했던 대표적인 성리학자는 이황이다. 이황은 서경덕의 논의를 단호하게 ㉢ 비판하며 ‘이’와 ‘기’는 하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이며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다. ‘이’는 하늘의 뜻, 즉 천도(天道)이며, 만물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본성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인간이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회복하고, 인간 사회는 천도에 맞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를 확립한다고 보았다. 현실 사회가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인간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악한 마음을 따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악한 마음은 인간의 생체적 욕구, 욕망 등인 ‘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기’가 하나일 수는 없으며, 둘은 철저히 ㉣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황의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라 한다. 이황은 ‘이’가 원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동한다고 보았다. ‘이’가 발동하면 그에 따라 ‘기’도 작용하여 인간이나 사회는 도덕적인 모습이 되지만, ‘이’가 발동하지 않고 ‘기’만 작용하면 인간이나 사회는 비도덕적 모습이 될 수 있다. 이황은 인간이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현실의 문제 상황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 ‘이’를 회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이는 서경덕과 이황의 논의가 양극단을 달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와 ‘기’의 관계를 새롭게 ㉤ 규정하였다. 이이는 ‘이’를 모든 사물의 근원적 원리로, ‘기’를 그 원리를 담는 그릇으로 보았다.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모양이 둥글고 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모양이

모나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물의 속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기'는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물이 그릇에 담겨 있지만 물과 그릇이 다른 존재이듯이, '이'와 '기'도 한 몸처럼 붙어 있지만 '이'와 '기'로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이에 따르면, '이'는 현실에 아무 작용을 하지 않고 '기'만 작용한다. 현실의 모습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 이는 '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회복하기보다는 '기'로 나타난 현실의 모습 자체를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 이이의 주장이다. 이이가 조선 사회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론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고가 바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 발동(發動): 일어나 움직임.

3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학적 용어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 ② 철학적 용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문답의 형식을 통해 철학적 용어의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실을 해석하는 철학적 용어가 등장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철학적 용어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나열하고 있다.

31. 윗글을 참고할 때, 아래의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경덕	이황
'이'와 '기'란 무엇인가?	'이'란 만물에 내재하는 원리이고, '기'란 '이'를 현실에 드러내 주는 방식과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이다.	
'이'와 '기'의 성격은 어떠한가?	ㄱ	ㄴ

- ① [ㄱ: '이'와 '기'는 하나이다.
ㄴ: '이'와 '기'는 철저히 구분된다.
- ② [ㄱ: '이'는 '기'와 별도로 작용한다.
ㄴ: '이'는 '기'와 동시에 작용한다.
- ③ [ㄱ: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이'이다.
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기'이다.
- ④ [ㄱ: '기'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ㄴ: '이'는 '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
- ⑤ [ㄱ: 생체적 욕구와 욕망을 '기'라고 본다.
ㄴ: 생체적 욕구와 욕망을 '이'라고 본다.

3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가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양반이 되어야 군포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밤낮으로 양반이 되는 길을 모색한다. 고을 호적부에 기록되면 양반이 되고, 거짓 족보를 만들면 양반이 되고,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하면 양반이 되고, 두건을 쓰고 과거 시험장에 드나들면 양반이 된다. 몰래 붙어나고, 암암리에 늘어나고, 해마다 증가하고, 달마다 붙어나 장차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양반이 되고 말 것이다.

- 정약용, 「신포의(身布議)」 -

- ① 양반이 되려는 백성들의 문제는 본성을 잃어버려서 생긴 문제이므로, 학문과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 ② 편법으로 쉽게 양반이 될 수 있는 현실이 백성을 이렇게 만든 것이므로,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③ 백성들의 행동은 현실에 내재하는 원리가 잘못되어 나타난 현상이므로, 현실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 ④ 양반이 되려는 백성들의 모습은 음양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음양의 또 다른 작용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 ⑤ 백성들이 양반이 되고자 하는 것은 군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러한 욕구를 따르지 않도록 천도에 맞는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33.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내부적으로 미리 정함.
- ② ㉡: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
- ③ ㉢: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을 지적함.
- ④ ㉣: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갈라 나눔.
- ⑤ ㉤: 내용이나 성격 따위를 밝혀 정함.

◆ 10 수능 13~15번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知)와 행(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특히 도덕적 실천과 결부하여 지와 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은 ‘지행병진(知行並進)’이었다. 그들은 지와 행이 서로 선후(先後)가 되어 돕고 의지하면서 번갈아 앞으로 나아가는 ‘상자호진(相資互進)’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 그 이치를 찾고자 하였다.

18세기에 들어 일부 실학자들은 지행론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였다. 홍대용은 지와 행의 병진을 전제하면서도, 도덕적 수양 외에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행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용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에게 지는 도덕 법칙만이 아닌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행이 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19세기 학자 최한기는 본격적으로 지행론을 변화시켰다. 그는 행을 생리 반응, 감각 활동, 윤리 행동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지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선천적인 지식이 따로 없고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된다고 보아 ‘선행후지(先行後知)’를 제시하고, 행이 지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최한기에게 지와 행의 대상은 인간·사회·자연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는 행을 통한 지의 형성, 그 지에 의한 새로운 행, 그리고 그 행에 의한 기존 지의 검증이라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지식론을 제시하였다. 그가 경험으로서의 행을 중시한 것은 자연 세계에는 일정한 원리인 물리(物理)가 있지만 인간 세계의 원리인 사리(事理)는 일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탐구하여 물리를 인식함으로써 사리가 성립되고, 이 사리에서 인간의 도덕인 인도(人道)가 나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행론은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다. 도덕적 수양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성리학자들과 달리, 실학자들은 피폐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학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최한기가 행을 앞세운 것은 변화하는 세계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13.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행후지의 현대적 의미 ② 지와 행의 개념과 그 한계
- ③ 도덕규범의 실천과 지행론 ④ 지행론의 변화와 그 배경
- ⑤ 삶에서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

14. 위 글을 통해 이끌어 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리학자들은 만물의 이치가 외부 세계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다.
- ② 홍대용은 지의 대상을 실용적 측면까지 확대했다.
- ③ 홍대용과 최한기는 행보다 지를 우선시했다.
- ④ 최한기는 학문의 목적을 도덕적 수양에서 찾았다.
- ⑤ 최한기는 선천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있다고 보았다.

15. <보기>는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하나이다. ‘최한기’의 입장에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언어 지식이 전혀 없이 태어난 아기는 성장하면서 몇 개의 단어만을 사용하여 불완전한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다가,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형태의 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 ① 다양한 시행착오는 행에 의한 기존 지식의 검증을 말하는 것이군.
- ②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지에 의해 행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③ 완전한 형태로 언어를 표현한다는 것은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군.
- ④ 아이가 배운 말을 표현하려는 것은 주관적인 지식을 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불완전한 언어 표현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인도를 통하여 사리를 얻는 과정으로 볼 수 있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관이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일관된 견해로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성리학은 이(理)와 기(氣)의 개념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통해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理)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내재된 보편적인 이치나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이(理)는 모든 사물에 본성으로 내재한다. 특히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이치로서의 선한 본성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성리학은 개개인의 도덕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에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를 기(氣)에서 ㉠ 찾는다. 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칫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다스리기 위한 부단한 수양을 통해 순수한 본성이 오롯이 발현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위해 성리학에서는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실학자 정약용은 성선설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분별 능력을 갖춘 윤리적 욕구라고 말하며 ㉡ 새로운 인성론을 주창하였다.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윤리적인 욕구만이 주어졌을 뿐이므로 선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실천해야만 비로소 도덕성이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즉 도덕성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선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실천이 이루어질 때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약용은 선의 실천이 나와 타인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학자 최한기는 세계의 모든 존재는 기(氣)라는 보편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모든 존재의 본성인 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선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기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면서 선악이 나타난다. 인간의 윤리도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면 선하고 도덕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인간은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경험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지각을 형성하며 이런 지각은 추측에 의해 확장된다. '추측'은 논리적인 추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윤리적 공부나 실천과 같은 경험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간이 올바른 추측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게 될 때 그것이 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추측을 바르게 하지 못해 외부 세계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내면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운동과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최한기는 외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부단한 소통으로 도덕성이 실현되는 공동체의 세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성리학은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면적 수양을 강조하였으며, 정약용과 최한기는 실천과 소통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성리학은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 ② 성리학에서는 본성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성리학에서와 달리 최한기는 본성을 절대 선한 것으로 보았다.
- ④ 성리학에서는 기는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⑤ 성리학에서는 개개인의 도덕성의 차이가 이(理)의 개별적 속성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18. ㉠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나아가 호연지기가 천지에 가득 차게 되어 모든 덕을 갖추게 된다. 반대로 날마다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익으로 유혹하면 개나 돼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 ① 사람은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 ② 사람은 남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바라는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 ③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선한 도덕성이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 ④ 사람은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선이 실현된다.
- ⑤ 사람은 감각을 통해 경험을 쌓고 추측을 통해 주변 사물과 소통하며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조선 후기에는 외부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는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관리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집착해 백성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라는 더욱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학자들은 대안을 모색하려 했다.

- ① 정약용은 부정한 관리들이 사리사욕을 채웠다 하더라도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겠군.
- ② 정약용은 백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겠군.
- ③ 최한기는 여러 관리들이 타고난 악한 기로 인해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겠군.
- ④ 최한기는 본분을 망각한 관리들의 모습은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 ⑤ 최한기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당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겠군.

20. ㉓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 ②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
- ③ 나는 저금했던 돈을 은행에서 찾았다.
- ④ 어떤 손님은 항상 이 과자만 찾는다.
- ⑤ 어머니가 빗자루를 찾는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산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당대 사람들이 인정했던 최고의 진리는 유가의 경전이다. 다산은 유가의 경전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시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였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로 달려갔다는 점에서 다산은 전통의 충실한 계승자이지만 단순한 계승에 그치지 않고 유가 경전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전개하였다.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다산 윤리학의 특징을 살펴보자.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악은 행하기가 쉽고 선은 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선천적으로 주어져 선과 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자유의지에 의한 선한 행위가 공적이 될 수 있고 악한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다산은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지와 선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정약용은 인간은 자유의지로써 행동하여 인(仁)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위정자로서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인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세상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로 제시한 것이 무엇일까? 서(恕)이다. 정약용이 말하는 서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서로써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다산은 『맹자』에 나오는 만물의 이치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뜻의 ‘만물개비어(萬物皆備於我)’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가 재물을 좋아하니 백성도 재물을 좋아함을 알 수 있다. 내가 편안함을 좋아하니 백성도 편안함을 좋아함을 안다. 내가 천대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하니 백성도 그러함을 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묻고 안색을 살핀 다음에야 그들이 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보듯이 다산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보편성이 있으므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서는 타자에 대한 상호 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하고 있으며 누구나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행위 원리이다.

다산은 서를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세를 **신독(愼獨)**이라고 보고 신독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라고 하였다.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은 바로 하늘이다. 정약용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천성을 부여한 존재인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선을 실천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당시 사대부들에게 군주와 백성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다. 정약용은 신독 공부를 남들이 모르는 일에도 생각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며,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허물과 과오를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독 공부를 평상시에도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경건한 태도를 몸에 익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신독 공부를 통해서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산 윤리학에서 신독은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인 윤리적 실천을 통해 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힘이며 정신적 구심점이다.

다산 윤리학은 생활 속에서 선의 실천을 지향하는 생활 현장의 윤리이다. 실천하는 것과 평상시에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통해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다산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 **상호 주관적 공동 세계인 것이다.**

35. ‘다산 윤리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동을 통해 인을 얻을 수 있다.
- ②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 ③ 서(恕)로써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타인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 ④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는 상호 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한다.
- ⑤ 만물개비어는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 자기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3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천적인 품성을 올바르게 바꿔가며 살아가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 ② 자유의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실천하며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 ③ 생활 속에서 누구나 노력 없이 선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 ④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통해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 ⑤ 실천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37. **신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면서 자신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다.
- ②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 ③ 잘못을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이며 선을 실현하게 하는 정신적 구심점이다.
- ④ 자신이 혼자 아는 일에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며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 ⑤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간에게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3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요즘 천재지변으로 해마다 흉년이 들어, ㉠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고통을 받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재정부에 명령하여 나라의 곳간을 열고, 연달아 감사관을 보내 ㉡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는 수령들을 징계한 바 있다. 슬프다. 부덕한 ㉢ 나로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모습들을 모두 다 알 수 없으니, 수령과 같은 백성과 가까운 관원들은 나의 이 진심 어린 뜻을 새겨, 관할 구역의 백성들이 굶주려 떠돌아다니지 않게끔 유의하라. 나는 장차 다시 ㉣ 조정의 관원을 파견하여, 그에 대한 행정 상황을 조사할 것이며, 만약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은 자가 있다면, 수령이 교서를 위반한 것으로써 죄를 논할 것이다.

- 『세종실록』, 세종 1년(1419) -

- ① ㉠을 서(愆)로써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 인을 성취할 수 있겠다.
- ② ㉡는 ㉠와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지 못하였군.
- ③ ㉢는 ㉡에게 한 행위를 통해 ㉠와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였군.
- ④ ㉢는 ㉠가 서(愆)로써 ㉠를 대하기를 바라겠다.
- ⑤ ㉠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에 의한 것이므로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겠다.

◆ 14년 3월 고2 A형 22~23번

[22~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리학의 주장에 의하면 만물에 부여된 순수한 원리는 ‘이(理)’이고, 이(理)가 현실 세계에 구현되게 하는 매체는 ‘기(氣)’이다. 세상의 만물은 이(理)와 기(氣)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理)가 구현되는 정도는 기(氣)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의 이(理)가 바로 세상 만물의 본성(本性), 즉 ‘성(性)’이다. 17, 18세기 조선의 성리학계에서는 사람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 즉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같은가 다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던 호론(湖論)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던 낙론(洛論)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호락논쟁(湖洛論爭)’이라 하는데, 이 논쟁은 조선이 중국보다 심화된 성리학적 논의를 전개하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 호론 계열의 학자는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이(理)는 동일하지만 사람만이 정밀하고 빼어난 기(氣)를 가진 덕분에 완전한 이(理)를 갖췄고, 동물은 거칠고 흐린 기(氣)를 가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理)를 갖췄다고 보았다. 이것을 근거로 그들은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그들이 기(氣)와 결합된 이후의 이(理)를 성(性)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만물에 부여된 기(氣)가 개체마다 다르므로 성(性)은 사람과 동물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반면에 ㉡ 낙론 계열의 학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기(氣)에 의해 발생하고, 이(理)는 기(氣)와 결합되기 이전이든 이후든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기(氣)가 다르다고 해서 기(氣)와 결합한 이(理)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그들은 사람과 동물을 포함한 만물의 본성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17, 18세기에 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호론 계열의 학자들은 청나라 문물의 영향을 덜 받는 충청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들은 청나라 사람을 오랑캐이자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보고 그들의 문물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 대신 우리가 가진 순수한 모습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낙론 계열 학자들은 서울 지역에 기반을 두어 청나라 문물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들은 청나라 문물이 결코 야만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그들은 청나라 사람도 조선 사람이나 명나라 사람과 같은 인간으로 보고 그들의 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평가를 내렸던 것이다.

2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理)’가 구현되는 정도는 ‘기(氣)’에 따라 정해진다.
- ② ‘기(氣)’는 ‘이(理)’가 현실 세계에 구현되게 하는 매체이다.
- ③ 호론과 낙론은 청나라 문물에 대해서 각기 다른 대응 자세를 보였다.
- ④ 호락논쟁은 논쟁 참여자의 지역적 기반 차이를 반영하며 전개되었다.
- ⑤ 호락논쟁 덕분에 조선의 학자는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3. <보기>에 대해 ㉠과 ㉡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물에 비친다고 하자. 고요한 물에 비친 달과 흐르는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은 다르다. 동일한 달이 물에 비친 것인데, 하나는 완전하게 둥근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찌그러진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동일하다.

(나) 호랑이가 자식을 아끼는 모습을 보라. 그들은 이(理)의 모든 덕목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과 달리, 이(理)의 덕목 중 인(仁)의 덕목만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벌이 여왕벌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라. 그들은 이(理)의 덕목 중 의(義)의 덕목만 실현하고 있다.

- ① ㉠: (가)에서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물에 비친 달’은 각각 사람과 동물의 기(氣)를 나타내는군.
- ② ㉠: (가)의 달의 ‘둥근 모습’과 ‘찌그러진 듯한 모습’은 기(氣)와 결합하기 이전의 이(理)를 나타내는군.
- ③ ㉡: (가)에서 ‘물’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변화시킬 수 없듯이 기(氣)도 이(理)를 변화시킬 수 없군.
- ④ ㉡: (나)에서 ‘호랑이’와 ‘벌’이 ‘이(理)의 덕목’ 중 하나만 실현한 것은 불완전한 이(理) 때문이로군.
- ⑤ ㉡: (나)에서 ‘호랑이’와 ‘벌’이 실현한 ‘이(理)의 덕목’이 다른 것은 이들이 지닌 ‘이(理)’가 다르기 때문이로군.

◆ 21년 3월 고3 16~21번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앎**,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A]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며, 인식 주체 S가 P를 믿고 있고, S는 P라는 그의 믿음에 대해 정당할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S는 P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㉔ 충족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은 게티어다. 다음의 예를 통해 그가 ㉕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 보자.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다.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안에서 들리는 환호성을 듣고 나는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게 되고,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어 지금 1 대 0이다. 이때 ㉖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은 정당화되며 참이다.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한국이 득점을 올린 바로 그 시점에 열린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소리였다. 따라서 나의 정당화되었던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되지 못한다.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게티어 이후 인식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화 기준을 만들거나 했다. 그 과정에서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 주체에 내재하는가 아니면 외재적인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내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을 때, 이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 믿음과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 관한 내 믿음이 바로 지구는 둥글다는 내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고 본다. 이때 인식 주체의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당화 요인에 대해 그가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외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 즉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책 앞에서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명제를 믿는다고 하자. 외재주의자들은 내 앞에 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㉗ 어떤 외재주의자는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도 했다. 내재주의자와 외재주의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지식 개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인식론적 관점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다.

(나)

동양에서는 인식론을 거론할 때, 흔히 주자의 격물(格物)과 치지(致知)를 거론한다. 격물의 기본 의미는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그 극한에까지 사물의 이치인 리(理)를 탐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치지란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㉘ 연마하고 확장하여

앎의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주자는 사람의 마음은 앎이 있지 앎이 없어서 격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앎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유가 철학의 전통적인 격물론이다.

주자의 영향을 받은 퇴계는 기본적으로는 그의 입장을 계승했다. 당초 퇴계는 격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 즉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物格)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그는 이런 관점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만년에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㉙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는 의미이다. 이를 퇴계는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이른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본 까닭은 만약 리가 리의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이른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마치 리가 물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식 과정에서 인식 대상인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인식 주체로서의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리자도(理自到)’이다.

이처럼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㉚ 허용한 것은 아니다. 리의 작용은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인식 대상 역시 인식 주체를 향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맥락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퇴계는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에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주자의 격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1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 ② 게티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 ③ 내재주의에 따르면 어떤 믿음의 정당화에는 그 믿음을 정당화해 주는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 필요하다.
- ④ 게티어 이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론자들이 있었다.
- ⑤ 전통적 인식론에서 인식적 정당화는 우리가 믿는 믿음들이 참이라고 할 만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인식 주체: S
○ 명제 P: 교실 분필 개수는 13개이다

- ①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실제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있다.
- ②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
- ③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믿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
- ④ S가 P를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실 분필 개수가 실제로도 13개이어야 한다는 요소가 필요하다.
- ⑤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S가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

18. <보기>는 퇴계가 쓴 글의 일부이다.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주자가 “리(理)는 만물에 있지만 그 작용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보면,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리가 스스로 이룬다고 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어찌 굳이 마음의 작용이라고만 하는가”라는 말을 보면, 리의 작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작용의 미묘함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리(理)가 드러난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이르는 데를 따라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고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 ① 주자는 사람에게 모든 앎이 갖추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만년에 퇴계가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군.
- ② 퇴계는 만년에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군.
- ③ 주자는 리에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퇴계가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근거가 되었겠군.
- ④ 퇴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룬다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이는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겠군.
- ⑤ 퇴계가 초기에는 리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여겼다가 만년에는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주자가 리의 능동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되어 있군.

19. ㉠의 입장에서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에서 ‘내 믿음’은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당화된다. 따라서 ㉠은 지식이 아니다.
- ② ㉠에서 ‘내 믿음’은 승진 축하연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은 지식이 아니다.
- ③ ㉠에서 ‘내 믿음’과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다. 따라서 ㉠은 지식이다.
- ④ ㉠에서 ‘내 믿음’은 비록 오해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참인 믿음이다. 따라서 ㉠은 지식이다.
- ⑤ ㉠에서 ‘내 믿음’은 환호성을 듣고 한국이 골을 넣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성되었고 실제 한국이 골을 넣었으므로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따라서 ㉠은 지식이다.

20.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한 학생의 읽기 활동이다. 학생이 수행한 활동의 내용이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비판적 읽기 활동

[글에 담긴 필자의 입장 비판하기]

- (가)의 필자는 외재주의의 한계는 문제 삼았지만 내재주의의 한계는 그러지 않았으므로 필자의 입장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 (나)의 필자는 퇴계가 주자의 격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했는데, 이 내용의 타당한 근거를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제나 화제 등에서 서로 관련 있는 부분을 비교하기]

- 앎이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가)는 게티어가 지식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인 입장을 문제 삼은 것을, (나)는 퇴계가 물격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을 다루고 있다. ㉢
- (가)는 현대 철학에서 지식의 습득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나)는 전통 철학에서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 ② ㉡: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
- ③ ㉢: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힘써 배우고 닦음.
- ④ ㉣: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음.
- ⑤ ㉣: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임.

◆ 16-6평 B형 17~20번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있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莊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이 호접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 쫓던 듯 쫓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곽자기(南郭子綦)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된 자아를 잊은 채 대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꼼짝없이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한다.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있을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물아일체’로 호접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17.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도의 몰입을 통한 소통과 합일의 의의
 - ②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
 - ③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위해 장자가 제시한 수행의 방법
 - ④ 자아와 세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위한 정적 상태의 극복
 - ⑤ 마음의 두 가지 상태와 그 상보적 관계에 대한 장자의 견해

18.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하겠군.
 - ②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하겠군.
 - ③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된 자아를 잊는다는 것과 같겠군.
 - ④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겠군.
 - 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있었다는 것은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였다는 말이군.

19. <보기>에 나타난 순자의 입장에서 윗글의 장자 사상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둔다. 그는 인간의 질서와 혼란이 자연 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의 말처럼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다.

- ①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수행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자아를 잊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
- ③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는 바탕이 된다.
- ④ 만물에 대한 분별 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하는 것으로는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2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미혹(迷惑)된
 - ② ㉡: 수용(受容)하고
 - ③ ㉢: 탈피(脫皮)하여
 - ④ ㉣: 출현(出現)할
 - ⑤ ㉤: 초월(超越)하여

었다. 장주는 가슴이 철렁하여 “아, 개체들이란 본래 서로 얽어매고, 다른 것들 사이에 서로 부르는구나!”라고 탄식하고 활을 버린 채 달아났다. 조릉의 관리자가 쫓아와서 장주를 꾸짖었다. 장주는 집에 돌아온 뒤 3개월 동안 뜰에 나오지 않았다.

(나) 장자가 산 속을 가다가 큰 나무를 보았다. 가지와 잎새가 무성하였다. 별목하는 자가 그 나무 곁에 멈추었지만 베지 않았다. 장자가 그 이유를 묻자, “쓸모가 없다.”라고 하였다. 장자는 말했다. “이 나무는 재목감이 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다 누릴 수 있구나.” 산에서 나와 옛 친구의 집에 묵었다. 친구는 기뻐하면서 하인 아이에게 거위를 잡아 삶으라고 하였다. 아이가 물었다. “한 마리는 잘 울고, 한 마리는 잘 울지 못하는데 어느 것으로 할까요?” 주인이 말했다.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다음 날 제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어제 산 속에서 본 나무는 재목감이 못되어서 수명을 다 누렸는데, 지금 집주인의 거위는 재주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장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재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로 대처할까. 재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는 그럴 듯하지만 실은 아니다. 그러므로 얽매이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만일 도(道)와 덕(德)을 타고서 노닐면 그렇지 않다.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사는 일도 없고 세상에 나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면서 때와 더불어 변화할 뿐, 내가 나서서 전적(專的)으로 하는 법이 없다. 때로는 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래가 되기도 하면서 상대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조를 맞추고, 만물이 나오는 근원에서 노닐며 ㉠ 외물을 외물로서 응대해 주고 외물에 의해 속박되지 않는다면 [物物而不物於物], 어찌 외물이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있겠는가?”

(다) 얼마 뒤에 자여가 병이 났다. 자사가 방문하자 자여가 말했다. “위대하다, 조물주여! 나를 이처럼 꼬부라지게 만드는구나!” 굽어서 등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오관이 있고, 턱은 배꼽에 숨었다. 어깨는 이마보다 높고 목뼈는 하늘을 가리켰다. 음양의 기(氣)가 어그러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가롭고 근심하는 것이 없었다. 비틀비틀 우물가로 가서 비추어 보고 말했다. “아, 조물주가 또 나를 이렇게 꼬부라지게 만드는구나!” 자사가 말했다. “너는 그것이 싫으냐?” 자여가 말했다. “아니다. 내가 어찌 싫어하겠는가? 점차 나의 왼팔을 변화시켜 닭으로 만들면 나는 시간을 알릴 것이요, 점차 나의 오른팔을 변화시켜 탄환을 만들면 나는 그 탄환으로 올빼미구이를 구할 것이요, 점차 나의 꿈무늬를 변화시켜 바퀴를 만들고 신(神)을 변화시켜 말로 만든다면 나는 그대로 타고 달리리니 명애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생명을 얻은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생명을 잃는 것도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때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의 변화에 순응하여 처한다. 슬퍼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은 그 사이에 개입할 수 없다. 이것이 옛 시대에 말했던 ㉡ 현해(懸解: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장자(莊子) -

◆ 05 MDEET(예비) 언어추론 32~34번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장주가 조릉(雕陵)의 금지 구역에서 어정거리다가 한 마리 특이하게 생긴 까치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날개의 넓이가 7척은 되었고, 눈의 크기도 1촌이나 되었지만, 장주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밤나무 숲에 앉았다. 장주가 생각했다. “이게 무슨 새인가? 날개가 넓은데도 멀리 가지 못하고, 눈이 커도 알아보지 못하네.” 바지를 걷고 재빨리 다가가 활을 쥐고 엿보았다. 매미 한 마리가 호젓한 그늘을 차지하고 제 몸을 잊고 있는데, 사마귀가 몸을 가리고 후려치려고 하였다. 사마귀는 사냥감을 보고 자기 몸을 잊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긴 까치는 그 기회를 틈타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까치도 이익을 보고 참된 자신을 잊고 있

32. 위 글로부터 이끌어 낼 수 없는 것은?

- ① 타자에게 이용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도리어 침해를 당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②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외물에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옹매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③ 인간에 대한 속박은 외물에 의해 야기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대응 방식에 의해 초래되기도 한다.
- ④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세울 수 없다.
- ⑤ 도와 덕은 외물에 의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도가 된다.

33. ㉠의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부유해도 예(禮)를 좋아한다.
- ㄴ. 물의 흐름과 같이 상대의 조건에 따라 변화하면서 대처한다.
- ㄷ.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래에 처하는 방식을 취한다.
- ㄹ. 오래 산다고 좋아하지도, 일찍 죽는다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 ㅁ.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는 거울처럼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34. ㉠에서 ‘현(懸)’은 어떤 것에 매달려 있는 상태, 즉 속박을 뜻한다. 이 ‘현’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가)~(다)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까치가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망각한 것이나, 장자가 까치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상황을 잊은 것은 ‘현’의 사례이다.
- ② (가)에서 관리인이 장자를 꾸짖은 것은 ‘현’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가 ‘현’의 상태에 빠진 자를 비판한 것이다.
- ③ (나)에서 재목감이 못 되어 살아남은 것이 곧 ‘현’의 상태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나)에서 “나서서 전적(專的)으로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현’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 ⑤ (다)에서 자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순응하여 유유자적하는 것은 ‘현’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자는 도(道)란 개체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원리로, 개체들 이전에 도(道)가 미리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장자는 『제물론』에서 도(道)는 개체들의 활동을 통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다녔기 때문에 생겨난 것처럼, 도(道) 역시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체들 사이의 관계의 흔적, 혹은 소통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도(道)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입장을 @ 지녔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 통해 대상을 구분할 때, 대상을 구분하는 이름은 대상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속성에 따라 명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연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대상과 이름 사이의 관계는 특정 공동체의 관습적인 언어 사용에 의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그 결과 대상들이 마치 실제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㉑ 여겨졌을 뿐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자는 ㉒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한 이름은 본질적으로 그 대상의 속성과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도(道)가 사후에 생성된다는 장자의 주장처럼, 왕충은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의미 역시 사후에 결정되며 ‘하늘의 뜻’과 같이 자연 세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 미리 정해져 있기에 인간은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왕충은 『논형』을 통해 자연재해가 인간을 비롯한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재해는 하늘의 뜻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하늘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왕충은 하늘의 작용이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인 것처럼 사람의 삶도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벼슬하느냐 못 하느냐는 한 사람의 재능에 ㉓ 달린 것이 아니라, 같은 수준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만나는 시대에 따라 출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재능을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지 못하면 등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

플라톤은 사물보다 사물의 의미가 미리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물에는 그것을 만든 ‘제작자’가 부여한 ‘필연적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계 역시 제작자가 필연적 의미에 따라 형성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루크테리우스는 세계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던 원자들이 우연히 마주쳐 응고되면서 생성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루크테리우스는 세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원자 그 자체의 무게로 인해 서로 평행하게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때 수직 낙하하던 원자들 중 하나의 원자가 평행 상태가 깨져 거의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은

미세한 편차로 기울게 되면 결국 옆의 원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이 마주침으로 인해 수많은 원자들이 연속해서 마주치게 되면서 원자들이 응고되고 그 결과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는 한 원자에서 발생한 미세한 편차를 ‘클리나멘’이라고 명명했는데, 원자들이 마주치거나 응고하는 방식은 미리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제작자가 필연적 의미에 따라 세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생각이 서양 철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루크테리우스의 생각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한편 기계 발명 및 기술 혁신을 계기로 발생한 산업 혁명 이후 크게 발달한 자본주의는 빈부 격차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심각한 대립을 초래하였다. 이에 일부 철학자들은 경제적인 것이 인간 사회의 구조 및 역사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원리라고 주장하며,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은 이미 정해진 역사 발전의 수순을 따르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자본주의는 곧 인류 역사에서 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알튀세르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구조와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을 한 가지 원리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루크테리우스의 철학에 영감을 받아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의 흐름은 정해진 역사 발전의 수순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우연의 결과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18세기의 이탈리아가 자본과 기술, 노동력처럼 자본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㉕ 갖추었음에도 자본주의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많은 요소들이 우연히 마주치고 응고되어야 자본주의가 발생하는 것이지 경제적인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만약 이 세계가 선제된 하나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인간은 이미 방향이 제시된 역사의 흐름을 따르는 존재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세계 형성의 우연성을 주장한 루크테리우스와 알튀세르의 주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새로운 마주침’을 시도함으로써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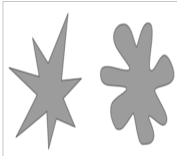
- ① (가)는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에 대한 사상가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 견해가 지닌 한계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나)는 사물의 의미에 대한 대립적 견해를 제시한 후 그 견해들을 절충한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도를 바라보는 사상가들의 논쟁을 소개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세계 형성의 근원을 밝힌 사상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서술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우연성을 중시하는 사상가의 입장과 그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를 소개하고 있다.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충은 자연 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삶이 분리되었다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비판하였다.
- ② 서양 철학에서는 제작자나 필연적 의미를 통해 세계의 형성을 설명하려는 사상이 존재하였다.
- ③ 장자는 '도'의 생성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길이 생기는 것에 비유하며 '도'와 개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 ④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가 사라질 것이라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역사의 발전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⑤ 알튀세르의 사상은 인간이 정해진 역사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 주었다.

6. ㉠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내용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뇌과학자인 라마찬드란과 후바드는 사람들에게 왼쪽 그림의 두 도형을 보여 주며, 각각 '부바'와 '키키'라는 소리와 도형을 짝짓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 실험 결과 95%의 실험 참가자들이 곡선 형태의 그림을 '부바', 뾰족뾰족한 형태의 그림을 '키키'라고 선택하였다. 추가 연구에 따르면 '부바'와 '키키'라는 소리를 만들 수 있는 모국어 사용하며, '부바', '키키'라는 명칭이 자신의 모국어에 없는 경우에 ㉡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유사한 실험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달리 실험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부바'와 '키키'라는 소리를 만들 수 없으면 ㉢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 ① ㉡는 대상에 부여된 이름이 그 대상과 필연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한다.
- ② ㉢는 대상들을 구분하는 언어가 대상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한다.
- ③ ㉣는 관습적인 언어 사용에 의해 대상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 ④ ㉡와 ㉢는 대상의 속성이 대상을 지칭하는 소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 ⑤ ㉡와 ㉢는 실험 참가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대상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7. 루크테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플라톤'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계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자가 낙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 ② 세계가 형성되기 전에도 원자들이 존재하려면 원자들의 존재 의미보다 원자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 ③ 원자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없다면 평행하게 떨어지던 원자에서 클리나멘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④ 원자들이 마주치거나 응고하는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연의 산물에 불과할 뿐이다.
- ⑤ 클리나멘에 의해 발생한 최초의 마주침이 다른 마주침으로 이어지려면 수많은 원자들이 이 세계에 존재해야 한다.

8. <보기>는 동서양 철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ㄱ. 사물은 필연적으로 원인이 되는 어떤 것에 의해 생성된다. 어떤 경우에도 사물은 원인이 없는 생성될 수 없으며, 이는 변하지 않는 사물의 생성 원리이다.
- ㄴ. 사람들이 발로 개미를 밟고 지나가서 죽일 수 있다. 물론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은 개미는 다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단지 사람의 발과 개미가 우연히 마주쳤는지, 혹은 우연히 마주치지 않았는지에 의해 나타날 뿐이다.
- ㄷ. 왕이 바르지 않은 정치를 행하려고 하면 하늘이 이상 현상을 일으켜 경고하여 다가올 위험을 알려준다. 경고를 했는데도 고칠 줄을 모르면 사변을 일으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할 줄 모르면 재앙이 일어난다.

- ① ㄱ에 제시된 사물의 생성 원리에 대한 인식은 알튀세르가 제시한 인류 역사의 흐름에 대한 시각과 상충되겠군.
- ② ㄱ에 제시된 원인에 관한 시각은 노자가 제시한 '도'가 개체들보다 선제한다는 생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ㄴ에 제시된 결과의 차이에 대한 견해는 왕충이 주장한 자연 재해가 발생하는 이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ㄴ에 제시된 사건의 발생에 대한 서술은 루크테리우스가 제시한 세계의 형성 과정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⑤ ㄷ에 제시된 사변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시각은 알튀세르가 제시한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한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군.

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견지(堅持)했다
- ② ㉡: 간주(看做)되었을
- ③ ㉢: 좌우(左右)되는
- ④ ㉣: 소멸(消滅)될
- ⑤ ㉣: 구성(構成)했음에도